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결혼관 그리고 자녀관]
미혼여성, 결혼하겠다는 사람보다 안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1) 한국인의 궁합 인식
 - 2) 낙태 실태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미혼여성, 결혼하겠다는 사람보다 안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지 오래다. 통계청의 '2021 혼인·이혼통계'를 보면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2021년에는 해당 통계작성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리서치의 결혼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 중 결혼하겠다는 사람보다 결혼 안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남녀들이 결혼을 의무적인 것으로 인식하기엔 '경제적인 여유'(결혼하지 않는 이유 남성 1위)도 없고, 딱히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결혼하지 않는 이유 여성 1위) 시대이다.

재미있는 점은 이 조사에서 다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69%)이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 다자녀 출산에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와 인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에 중요하다. 이번 <넘버즈 155호>에서는 '한국인의 결혼관과 자녀관'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교회가 가정 사역에 있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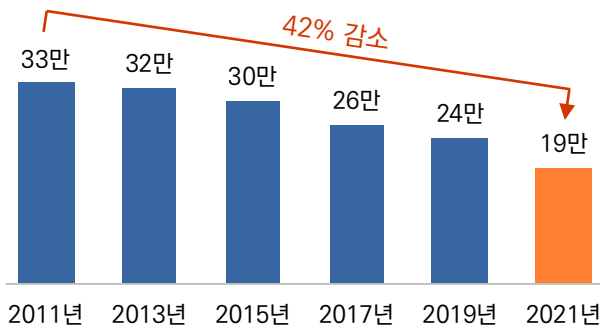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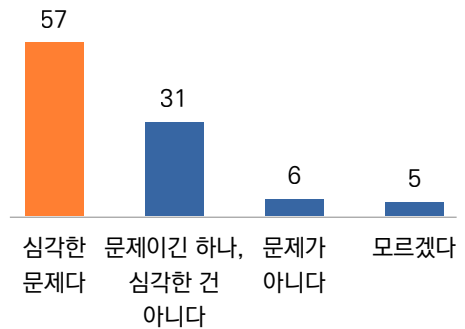
우리나라 혼인건수, 과거 10년 간 42% 감소!

- ▶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1년 혼인건수는 19만 건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10년 전 대비 42%나 감소한 수치이다.
- ▶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혼인건수가 급감해 2019년 24만 건에서 2021년 19만 건으로 2년사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러한 혼인 감소를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민의 절반이 넘는 57%가 혼인 감소를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고, '문제이긴 하나, 심각한 건 아니다'는 의견은 31%였다.

[그림] 혼인건수 추이* (건)



[그림] 혼인 감소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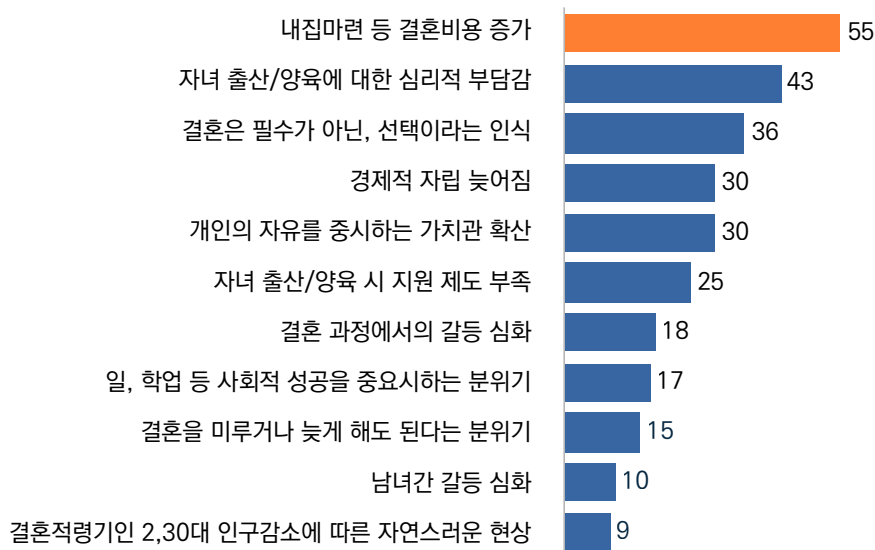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22.03.17.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 혼인건수 감소 이유, '결혼비용 증가'와 '자녀출산/양육 부담' 때문!

- ▶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했는데(중복응답), '결혼비용 증가'가 55%로 가장 높게 지적됐고, 다음으로 '자녀출산/양육 부담' 43%,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 36%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전체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혼인건수 감소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림] 혼인건수 감소 이유 (중복응답, 상위 11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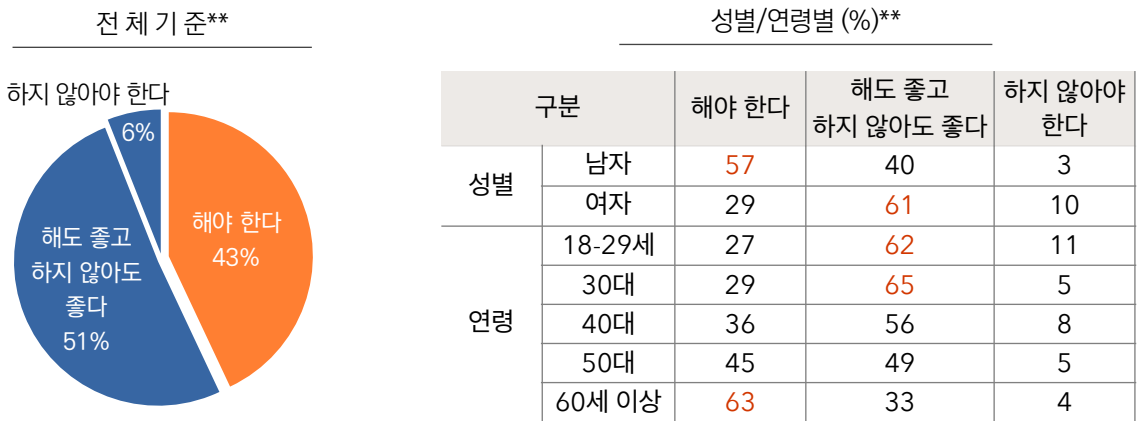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02

결혼, '해야 한다'는 인식, 국민의 절반도 안돼!

- ▶ 앞서 절반 이상이 혼인 감소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혼하는 것에 대해 묻은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 ▶ 특히 성별과 연령별로 인식의 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혼인 감소에 따른 '심각성'을 높이 평가한 '남성'과 '60세 이상'에서 동일하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여성과 2030 젊은이들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이 높아 결혼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그림] 결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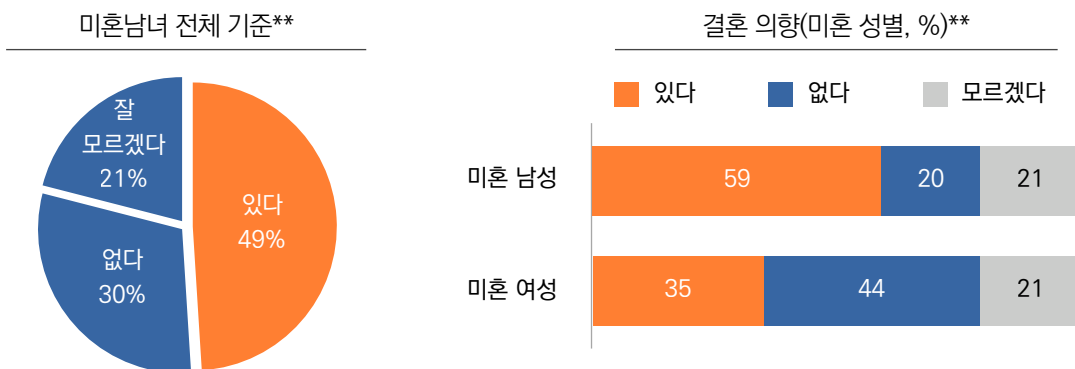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5점 척도 질문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편이 좋다' 응답의 합이며,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하지 않는게 좋다'와 '절대 하면 안된다' 응답의 합임.

◎ 미혼 여성, 결혼하겠다는 사람보다 안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

- ▶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질문하였는데, 미혼 전체의 49%가 결혼의향을 밝히고 있으며 30%는 아예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성별로 보면, 미혼 남성은 59%가 결혼 의향을 보인 반면, 미혼 여성은 단지 35%만 결혼 의향을 보인 점이 특징적이다. 미혼 여성은 결혼 의향자보다 비의향자가 더 많았다.

[그림]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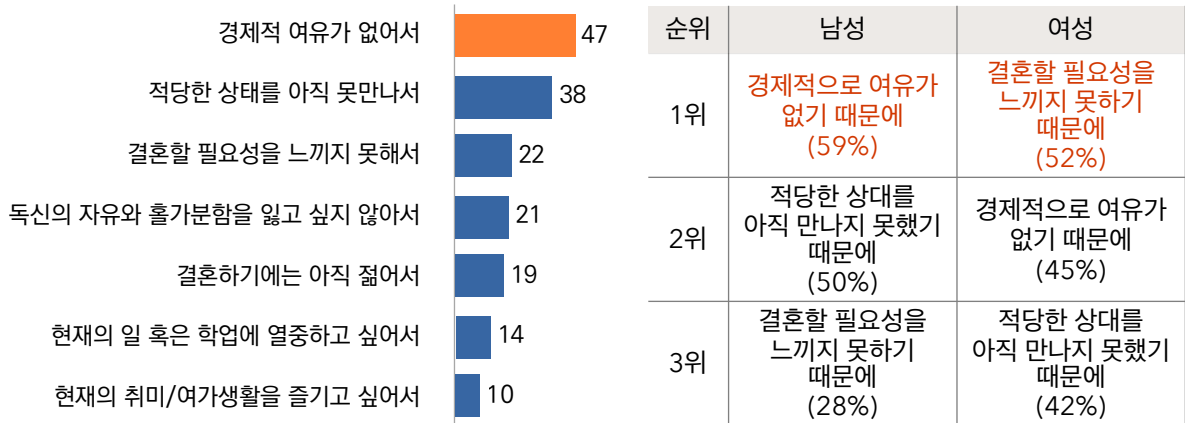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5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전혀+별로'의 비율임

◎ 결혼하지 않는 이유, '경제적 여유 없음'이 가장 크게 작용!

- ▶ 미혼자에게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가 47%로 1위로 꼽혔고, 다음으로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38%,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22% 등의 순으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 ▶ 다만, 성별로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서로 다른데, 남성은 '경제적으로 여유없음'을, 여성은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각각 1위로 응답했다.

[그림] 결혼하지 않는 이유 (미혼 전체, 중복응답, 상위 7위, %) [그림] 결혼하지 않는 이유(미혼 성별, 중복응답, 상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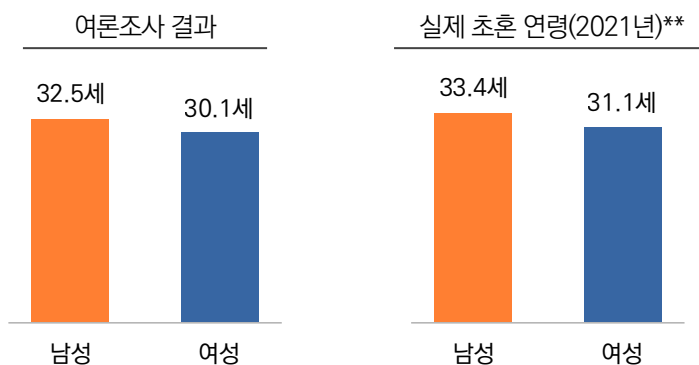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 결혼 적령기는? 남성 평균 32.5세, 여성 평균 30.1세

- ▶ 결혼한다면, 몇 살에 하는 것이 좋을지 남녀를 구분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들이 답한 나이의 평균은 '남성'은 32.5세, '여성'은 평균 30.1세로 나타났다.
- ▶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작년에 결혼(초혼)한 사람들의 실제 나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33.4세, 여성은 31.1세로 나타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결혼 적령 연령보다 실제 결혼은 1살 정도 더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결혼하기 적절한 나이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반드시 해야 할까?-결혼에 대한 인식, 2022.05.25.(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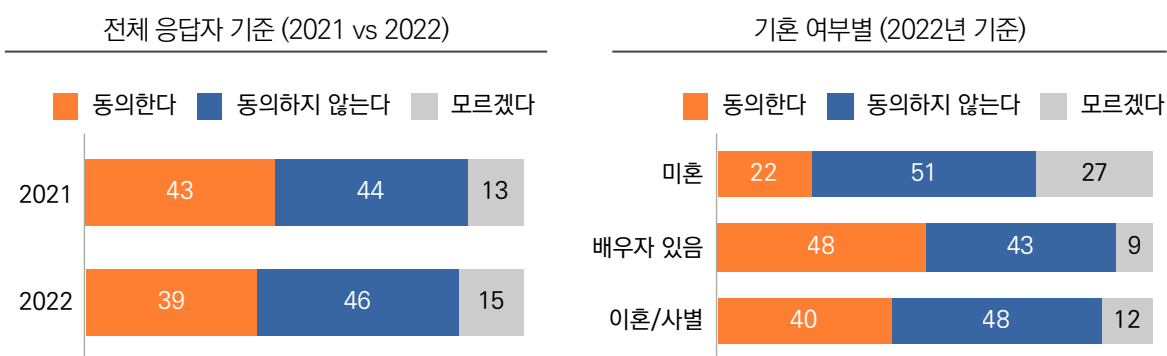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2022.03.17.

03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 기혼자는 '동의', 미혼자는 '부동의'!

- ▶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얼마나 될까?
- ▶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39%만 동의하였고, 46%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 조사 결과 대비 동의율이 43%에서 39%로 4%p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 혼인여부별로 살펴보면, 현재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동의 48%, 동의하지 않음 43%로 동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미혼자는 동의 22%, 동의하지 않음 51%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결혼생활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인식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일반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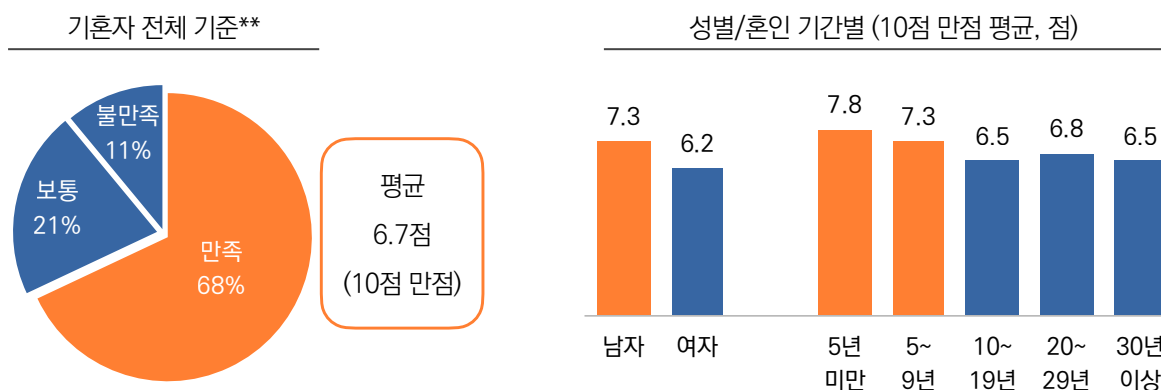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다?-결혼생활 만족도, 2022.06.15.(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기혼자 601명), 웹조사, 2022.05.20.-05.23)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전혀+별로 비율임.

◎ 2022년 한국인의 결혼생활 만족도,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아

- ▶ 기혼자를 대상으로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6.7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면 결혼 생활 만족도가 67점으로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었다.
- ▶ 결혼 생활 만족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한국인의 결혼생활 만족도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다?-결혼생활 만족도, 2022.06.15.(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기혼자 601명), 웹조사, 2022.05.20.-05.23)

** 11점 척도 질문으로 0-4점은 불만족, 5점은 보통, 6-10점은 만족으로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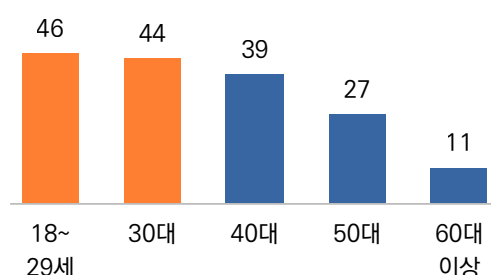
04 국민의 82%, 결혼 전 동거 '괜찮다'!

- ▶ 우리 국민은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응답자의 52%가 '결혼을 전제한다면 해도 괜찮다'고 답했고, 30%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답해 대부분의 국민(82%)이 결혼 전 동거(결혼 전제+비 전제)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혼을 전제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는 응답은 17%였다.
- ▶ 반면, 동거에 대해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는 응답의 경우 20대 46%, 30대 44%로 나타나, MZ세대들과 기성세대 간의 커다란 인식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그림] 결혼 전 동거에 대한 인식 (%)



[그림] 동거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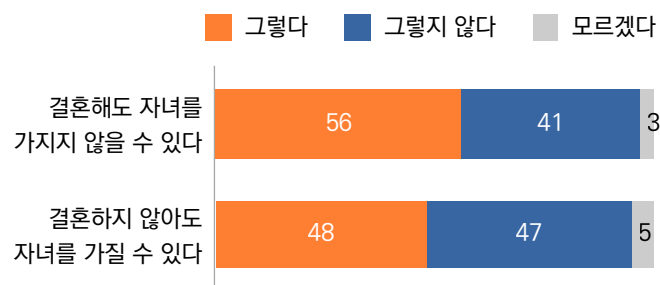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혼전동거 등에 대한 인식, 2022.06.22.(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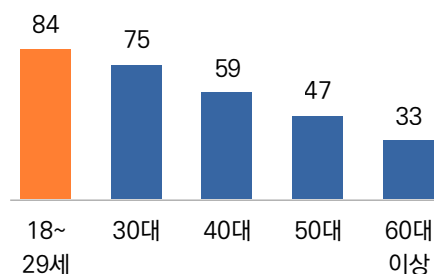
05 '결혼 = 출산' 인식 낮아져!

- ▶ 사람들은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 5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은 연령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20대층에서는 대부분(84%)이 동의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동의율이 33%에 불과했다.
- ▶ 반대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국민의 절반 정도(48%)가 동의하고 있어 '결혼=출산' 인식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자녀에 대한 인식** (동의율, %)



[그림] '결혼해도 자녀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연령별, 동의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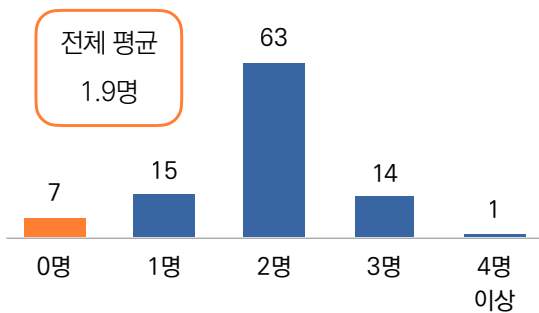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자녀관 조사- 자녀의 필요성, 자녀를 갖는 시기 등, 2022.06.29.(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6.03.-06.06)

**4점 척도 질문으로 '그렇다'(매우+어느정도), '그렇지 않다'(전혀+별로)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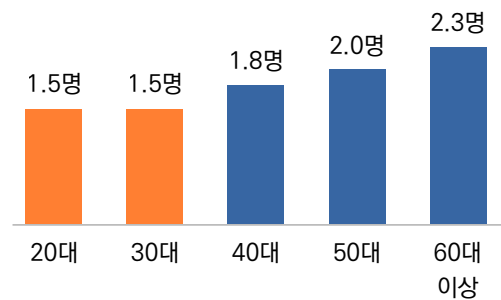
◎ 이상적인 자녀수, 20대 1.5명, 60대 이상 2.3명!

- ▶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2명이라는 응답이 63%로 가장 많았고, 1명(15%), 3명(14%) 순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1.9명으로 조사됐다.
- ▶ 한편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0명이라고 답한 응답이 7%나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6%, 12%가 '0명'이라고 답해 MZ세대에서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 ▶ 연령대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달랐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 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이상적인 자녀 수 (전체, %)



[그림]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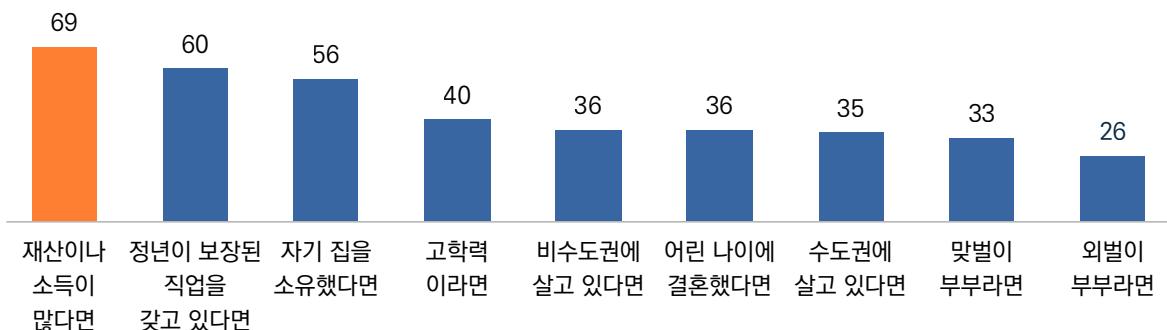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자녀관 조사- 희망하는 자녀의 수, 다자녀의 조건 등 2022.07.1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6.03.-06.06)

◎ 재산이나 소득 많다면? 69%는 '다자녀 가지는게 좋다!'

- ▶ 여러 조건을 제시한 후 각각의 항목이 다자녀의 조건이라 인식하는지 동의 여부를 물었다.
- ▶ 먼저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면' 자녀를 여럿 가지는 게 좋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갖고 있다면(60%)', '자기 집을 소유했다면(56%)' 자녀를 여럿 가지는 게 좋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다자녀 출산을 위한 조건임을 보여주었다.
- ▶ 반면 학력, 거주지역, 나이, 별이형태(맞벌이/외벌이) 등은 20~40%대로 다자녀 조건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_____, 자녀를 여럿 가지는 게 좋다 ('동의한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자녀관 조사- 희망하는 자녀의 수, 다자녀의 조건 등 2022.07.13.(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6.03.-06.06)

**4점 척도 질문으로 동의한다(전적으로+동의를 하는 편)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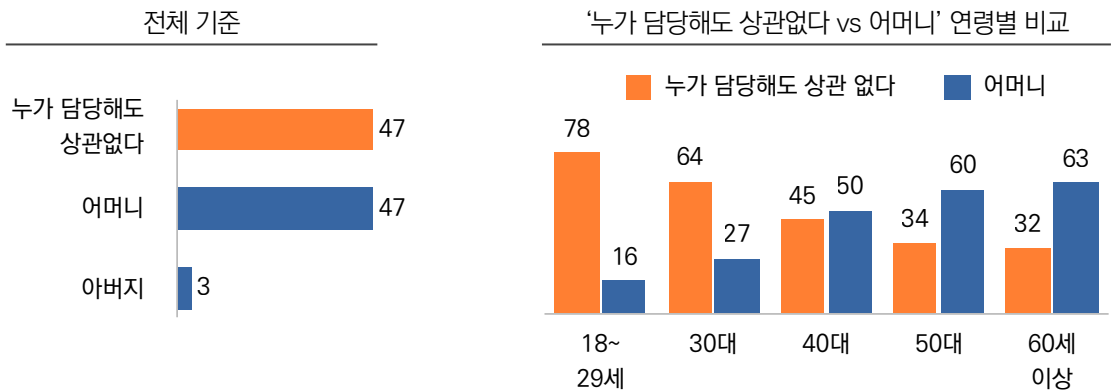
06

자녀양육은 누가?

누가 담당하든 상관없다 47%,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야 47%!

- ▶ 자녀의 양육은 누가 주로 담당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누가 담당해도 상관없다’와 ‘어머니가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7%로 나타났고, 아버지가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 ▶ 연령별로 확연한 인식차를 보였는데 3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는 ‘누가 담당해도 상관없다’(18~29세 78%, 30대 64%)는 의견이 우세했고, 5060세대에서는 ‘어머니’(50대 60%, 60세 이상 63%)가 주로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림] 자녀 양육 주 담당자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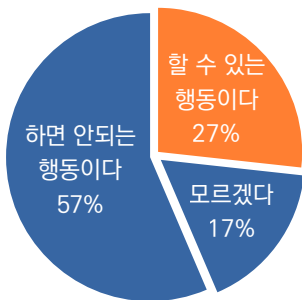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자녀관 조사-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 자녀양육 인식, 2022.07.20.(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6.03.-06.06)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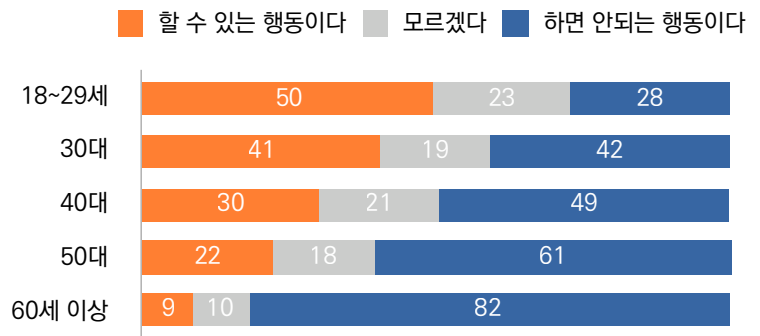
동성간 결혼, '할 수 있다' 27%!

- ▶ 남성과 여성이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반적인 결혼제도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남녀 관계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 ▶ 먼저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가 '할 수 있는 행동이다'라고 응답해 국민 10명 중 3명 가까이 동성 결혼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러한 동성 결혼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20대(50%)와 60대 이상층(9%) 간에 무려 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동성간의 결혼에 대한 인식 (전체 응답자 기준)



[그림] 동성간의 결혼에 대한 인식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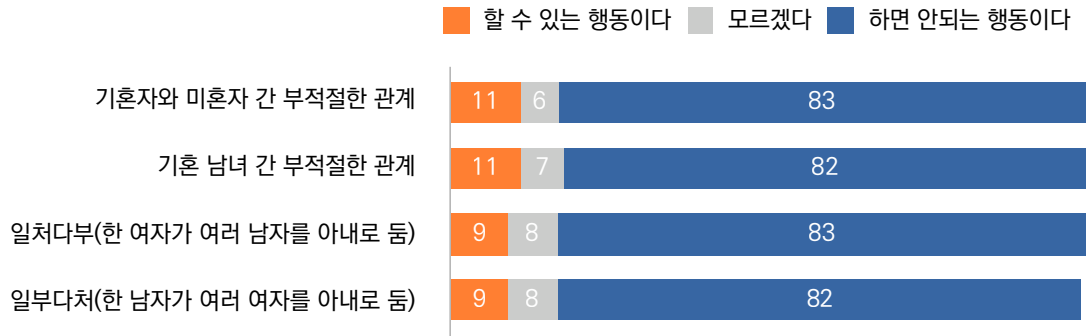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혼전동거 등에 대한 인식, 2022.06.22.(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 불륜, “할 수 있는 행동이다” 11%!

- ▶ 이번에는 기혼자와 미혼자, 기혼 남녀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할 수 있는 행동이다’는 응답이 11%로 우리 국민 10명 중 1명 가량은 불륜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또한 일부다처제에 대해서는 9%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림] 불륜, 일부다처제 대한 인식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결혼 준비과정 및 결혼 비용 부담, 혼전동거 등에 대한 인식, 2022.06.22.(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시사점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결합한 이후 인류 사회의 핵은 가족이었다. 가족을 기반으로 사회가 구성되었고, 역사도 가족 안에서 이어졌다. 사랑, 희생, 배려, 헌신 등 인간의 숭고한 가치는 가족 안에서 꽃 피웠다. 동시에 가족 때문에 인간은 질투, 투쟁, 탐욕을 키워 왔다. 그만큼 가족은 인간사의 기초였다.

그런데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 가족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성립되는데 혼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33만 건의 혼인 건수가 2021년에는 19만 건으로 크게 줄었다. 10년 사이에 42%(14만건)이나 줄어든 것이다.(3쪽) 그렇다고 앞으로 혼인이 늘어날 거 같지도 않다. 왜냐 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결혼에 찬성을 보인 비율이 43% 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응답은 전 연령대를 포괄한 응답인데,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해야 하는 20대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비율이 27%로 겨우 4명 가운데 1명 만 결혼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이다.(4쪽) 또 미혼 여성들 가운데 결혼 의향이 '있다' 35%, '없다' 44%로 결혼하겠다는 사람보다 안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4쪽)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다.(47%) 취업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가족을 꾸려서 최소한의 생활 기반, 특히 주거 기반을 만드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결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하면 다시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냉혹한 사회에서 자녀 양육비, 사교육비 등 돈이 많이 드는 현실 역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데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꼭 경제적인 것과 자녀 양육에만 있지 않은 거 같다. '결혼하지 않아도 후회하고 결혼해도 후회한다'고 우스개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에 동의한 사람이 39%,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46%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즉 결혼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인식이 더 많은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미혼자는 22%만이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결혼하면 행복하다'라는 데에 거부감이 높다. 경제적 부담도 많고 자녀에 대한 책임도 무거운데, 결혼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러한 인식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가족의 흔들림은 가족의 탄성이 줄어들다는 데에만 있지 않다. 가족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공식적 과정을 거쳐 결합하므로 탄생한다. 결혼이라는 공식적 과정이 없는 '동거'는 남에게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터부시되었던 것이 우리 사회였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 사회는 '동거'에 관대해지고 있다.(7쪽) '동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공식적 절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동거'가 자칫 가족을 가볍게 여기는 촉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의례'(ritual)라는 형식이 불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형식이 내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거' 커플이 만남과 헤어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가족은 남녀의 결합인데,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해서도 관대해지는 점도 우려스럽다. 또한 가족은 배타적 사랑을 전제로 하는데 이런 불륜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 일부 존재하는 것도 가정의 위기이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이다. 그러므로 가족은 아름답게 보전되어야 하고 이어져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정은 행복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양성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능력 있는 여성이 가정에서조차 가사 부담을 더 지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처해 있다면 그 여성이 행복해질리 없고, 여성의 불행은 곧 부부 모두와 가족 전체의 행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는 부부 간에 화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가 자주 싸우고, 대립하며 갈등을 빚는다면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행복할리가 없고 그런 자녀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한국인의 공합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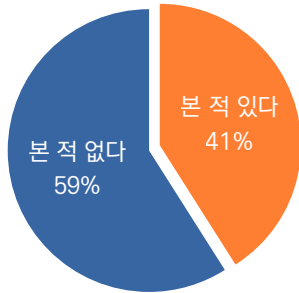
2.[낙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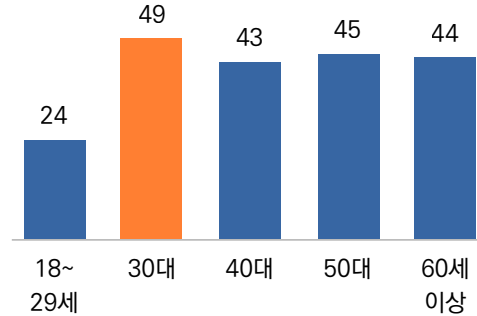
성인남녀 10명 중 4명(41%), ‘연인 혹은 배우자와 공합 본 적 있어!’

- ▶ 연인 혹은 배우자와 공합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민 10명 중 4명(41%)은 ‘공합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9%는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 ▶ 연령별로는 결혼 적령기인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경험률(4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연인/배우자와 공합 본 경험



[그림] 연령별 공합본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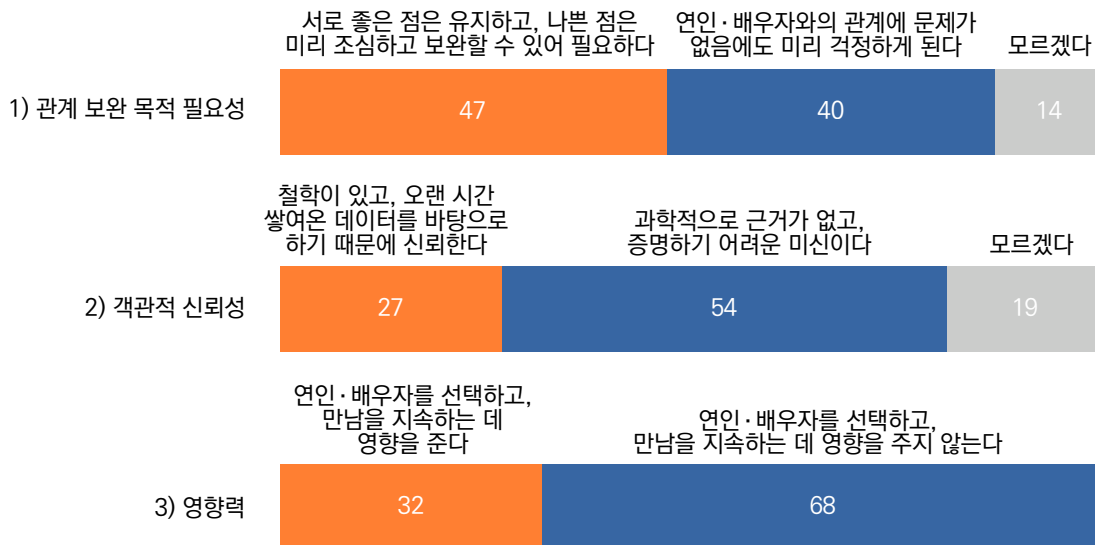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공합에 대한 인식, 2022.06.29.(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 국민의 1/3, 배우자 선택/만남 지속하는데 공합이 영향준다고 인식!

- ▶ 몇가지 보기를 제시하고 공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서로 좋은 점은 유지하고 나쁜 점은 미리 조심하고 보완할 수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47%로 응답자 절반에 가까웠으나, 신뢰성에 대해서는 27%만이 동의하였다.
- ▶ 그렇지만, 공합이 연인/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남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32%로 국민 3명 중 1명 가량으로 꽤 높게 나타났다.

[그림] 공합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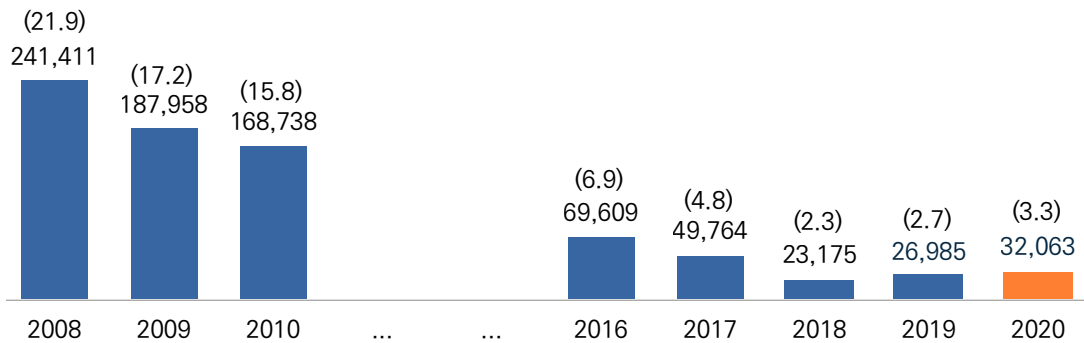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공합에 대한 인식, 2022.06.29.(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웹조사, 2022.05.20.~05.23)



2020년 낙태 32,000건...2018년 대비 38% 증가!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약 32,000건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2010년) 17만 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의 경우 2018년 대비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또, 2020년 만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천 명당 3.3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낙태를 시행한 건수를 토대로 1천 명당 임신중절률을 계산, 15~44세 인구에 대입해 비중을 환산한 것이다.

[그림]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 추이 (건) < 괄호 안은 중절률(천명당) 임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29.(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조사, 2021.11.19.~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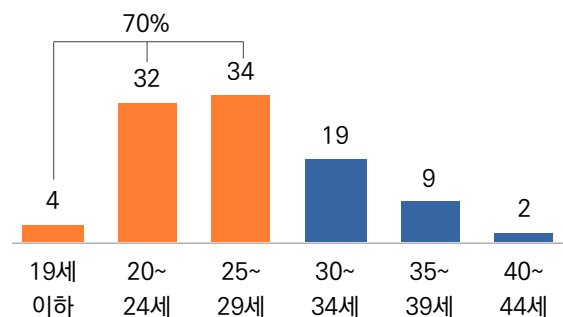
◎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절 당시 평균 연령 27세...20대가 낙태 경험 가장 높아!

- ▶ 인공임신중절(낙태)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중절 당시 평균 연령(2020년)은 만 27세로, 2018년 결과(평균 만 28세)와 비교해 1살 정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5~29세’ 34%, 20~24세 32%, 30~34세 19% 순으로, 낙태 경험자 중 20대 이하 여성이 10명 중 7명(7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당시 평균 연령 (2020년, 인공임신중절 경험 있는 여성)



[그림]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의 당시 연령 (2020년, 인공임신중절 경험 있는 여성, %)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년) 주요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06.29.(만 15~49세 여성 8,500명, 온라인조사, 2021.11.19.~12.06)

**보도기사: 2020년 인공임신중절 3만 천건...임신여성중 15% "낙태 경험"(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20630100900530?section=search>)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06호\(2022년 8월 1주\)](#)

-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동물의 법적 지위, 동물 감정, 개 식용 관련 인식 등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76호\(2022년 7월 4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긍정/부정 평가 이유, 국정운영 신뢰도, 정당지지도 등

['尹 매우 못함' 극안티층 급증... "조국사태 때 文수치 넘어섰다"](#)

중앙일보_2022.08.04.

◎ 사회 일반

[코로나 누적 확진 2천만 명 넘을 듯...국민 5명 중 2명이 확진 경험](#)

한국경제_2022.08.02.

[코로나에 내몰린 중장년...40·50대 8명중 1명 "돈 빌린적 있다"](#)

연합뉴스_2022.08.07.

['친구·연인과 산다'...비친족 가구원 100만명 돌파, 역대 최대](#)

문화일보_2022.08.01.

[한국 1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졌다... 노령화지수 69에서 143으로](#)

크리스찬타임스_2022.08.02.

[저출산에 코로나에... 72년 만에 국내 총인구 첫 감소](#)

국민일보_2022.07.29.

[당장 내년 내국인 5000만명 깨져... 3년뒤 학령인구 94만명 급감](#)

조선일보_2022.07.29.

[더 일하고 싶은 고령층 1035만명...절반이 "생활비 벌어야"](#)

중앙일보_2022.07.27.

[일반 1인가구, 취약 1인가구, 은둔 1인가구로 유형화해 맞춤형 처방과 정책 대응 필요](#)

서울&_2022.08.04.

['수면 빛' 전세계 1위 한국...잠 1시간 덜 자면 뇌에 생기는 일](#)

중앙일보_2022.08.04.

[직장인의 '연차 휴가\(유급 휴가\)'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_2022.07.29.

["성적보다 네가 더 소중한" 금쪽이의 집을 내려주세요](#)

국민일보_2022.07.29.

[심상치 않은 폭락... 올가을 농민들이 걱정된다](#)

오마이뉴스_2022.08.03.

[동물의 법적 지위 및 개 식용 등 관련 인식 조사](#)

한국갤럽_2022.08.0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한국 최저임금 일본 넘었다...내년 韓 9620원 vs 日 9509원](#)

한국경제_2022.08.01.

[다중채무 자영업자, 6개월새 13만명 ↑ ...경제위기 '뇌관' 우려](#)

국민일보_2022.08.02.

["서민 음식 김치찌개도 못 먹을 판"...최악의 상황 닥쳤다](#)

한국경제_2022.08.02.

[데이터가 증언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빛'](#)

시사IN_2022.08.05.

[對中 무역수지, 30년만에 3개월 연속 적자... 美 수출액은 최대](#)

동아일보_2022.08.02.

◎ 건강

['매일 운동' 어려운데...주말 등산만으로 건강 지킬수 있을까](#)

동아일보_2022.07.30.

◎ 국제

[돈·선물·성관계...세계 휩쓰는 中共의 '국내 정치 공작', 한국에선?](#)

조선일보_2022.07.22.

["연애·성생활은 사치" 일본 이대남 40%는 초식남 넘어 절식남](#)

매일경제_2022.08.06.

◎ 기독교 / 종교

[선교사 10명 중 6명 "은퇴 후 살림살이 팍팍해질까 걱정"](#)

국민일보_2022.07.27.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미주한국일보_2022.07.28.

[美 "사회적 담론 나누기 적합한 직군 2위는 목회자"](#)

크리스천투데이_2022.08.02.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울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름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백산, CNP코퍼레이션(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립,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신규 후원 |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일동동부교회(김성일 목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